



제29호

교수회보

CONTENTS

2018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보



- 03 교수회장 인사
- 04 교원업적평가 기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
- 12 사회과학의 미래 - 박홍식 교수
- 16 나와 다른 것 인정하기 - 손남익 교수
- 19 지진과 신개념 스마트 신소재 - 김세훈 교수
- 23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 - 김재호 교수
- 32 총장 출마자와 선거 운동 방식 - 현광민 교수
- 37 신임교수 소개
- 39 정년퇴임교수 소개
- 45 교수 동정
- 47 교수회 활동
- 60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 64 평의원회 명단



2018 교수회보 발간사

새삼스럽다고나 할까? 교수회장이 되어 교수회보의 발간사(發刊辭)를 쓰기 위해서 “교수”라는 말을 찾아보았다. ‘교수(教授, 영어:professor)’는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교나 대학원 등에서 강의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반적인 교사는 고등학교까지의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지만, 교수는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 학문을 연구하고 새로운 이론과 주장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는 위치에 있다는 면에서 구별된다. 교수는 학자로서 학문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며,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소명을 지닌다. 문자적으로 교수라는 단어는 예술이나 과학에서 주로 전문가로, 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선생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C%88%98>) 인용



교수회장
함석종

그야말로 교수의 의무는 “교육”, “연구”, “봉사(학생지도, 대학행정 참여, 사회봉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인지 어떤 대학의 수준이나 평가는 소속된 교수들의 실적에 따라 좌우된다. 대학에서 교수가 없다면 그 곳이 대학일까? 진정한 대학의 운영 주체는 교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에 대학 내외에서 교권(교수의 권리, 교수의 권한)의 침해에 대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선진 외국의 대학들에서는 볼 수 없는 교수에 대한 저급의 생각과 요구들이 난무하면서 교수로서의 자부심, 자존심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 총장과 본부 보직자들은 그 자리가 영원한 것인 양, 부메랑이 될 자신의 결정과 행위가 대학을 위한 것, 아니 공공의 발전을 위한 것인 양, 다른 세력과 부화뇌동 하면서 교수 길들이기(?)를 한다.

얼마 전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안) 발표회장에 갔다. 담당직원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성적산출표 0.6점 때문에 우리대학 등급이 한 등급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것이 교수들 때문이라는 의미 섞인 말을 하는 이가 있었다. 성질 같아서는 실컷 패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무런 사전 준비와 통보조차 없었던 그대들의 잘못도 크다고 하면서 말이다.

대학평의회 구성 건도 마찬가지다. 대학평의회 구성원의 50%를 직원과 학생이 차지하여 교수 세력을 견제하겠다고 한다. 교수들의 주된 업무인 교육, 연구, 학생지도 및 봉사를 학생과 행정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일부 나태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교수들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교수들이 저급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별로 기분 좋은 것은 아니다. 맑은 바에 충실하면서 교수로서의 갈 길을 가야겠다. 그네들에게 발미를 주지 않도록 교수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자.

2018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며 많은 실적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교수회장 함석종

교원업적평가 기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

◎ 연구의 필요성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신규임용, 성과급 지급, 우수교육교수 및 우수연구교수 선정과 표상 등의 심사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교내 교원 각종 평가 규정들이 서로 상이하고 복잡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기준에 의거 성과연봉제의 보수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요

- 본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 업적평가기준(5문항), 연구영역(6문항), 교육영역(5문항), 봉사영역(4문항), 산학협력영역(5문항)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25문항을 질의함
- 응답자의 특성

연령별			캠퍼스별			소속대학별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40세미만	8	6.0	강릉캠퍼스	97	72.4	인문대	14	10.4
40-49세	28	20.9	원주캠퍼스	31	23.1	사회대	10	7.5
50-59세	68	50.7	합계	128	95.5	자연대	13	9.7
60세이상	24	17.9	미응답	6	4.5	공대	12	9.0
합계	128	95.5	총계	134	100.0	생과대	23	17.2
미응답	6	4.5				예체대	12	9.0
총계	134	100.0				치대	12	9.0
						과기대	26	19.4
						보건복지대	3	2.2
						합계	125	93.3

◎ 세부 문항별 요약

1. 업적평가기준

1) 업적평가 선호유형

- 질의: 현재 우리대학은 모든 교원에게 교육, 연구, 봉사 또는 산학영역을 동일하게 업적평가가 적용되는 ‘단일유형’을 채택하고 있음. 타 대학의 경우 본인이 중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영역의 선택이 가능한 복수유형을 채택하고 있음. 단일유형과 복수유형 중 선호하는 유형은?
- 응답: 단일유형 51명(38.1%), 복수유형 83명(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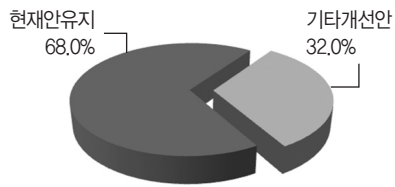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단일유형	51	38.1	38.1
복수유형	83	61.9	61.9
합계	134	100.0	100.0



2) 단일유형 선택자 중 교육:연구:봉사 및 산학협력의 비중

- 질의: 단일유형 선택한 경우, 선호하는 교육:연구: 봉사 및 산학협력 점수 비중은?
- 응답: 현재안(40:50:10) 유지 34명(68.0%), 기타개선안 16명(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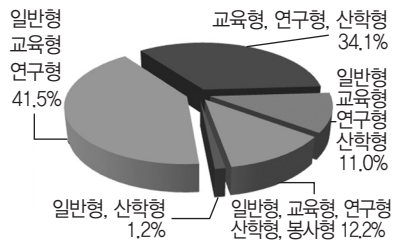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현재안유지	34	68.0	68.0
기타개선안	16	32.0	32.0
합계	50	100.0	100.0



3) 선호하는 복수유형의 형태

- 질의: 복수유형 선택한 경우, 선호하는 복수유형 형태는?
- 응답: 일반/산학형 1명(1.2%), 일반/교육/연구형 34명(41.5%), 교육/연구/산학형 28명(34.1%), 일반/교육/연구/산학형 9명(11.0%), 일반/교육/연구/산학/봉사항 10명(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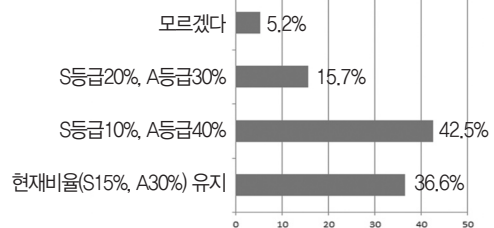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유효비율(%)
①일반/산학형	1	1.2
②일반/교육/연구형	34	41.5
③교육/연구/산학형	28	34.1
④일반/교육/연구/산학형	9	11.0
⑤일반/교육/연구/산학/봉사항	10	12.2
합계	82	100.0



4) 성과연봉제의 S등급과 A등급 비율

- 질의: 현재 우리대학의 성과연봉제 등급별 인원비율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15%:35%:50- α : α 로 구성됨. 선호하는 S와 A등급의 비율은?
- 응답: 현재유지 49명(36.6%), S10%+A40% 57명(42.5%), S20%+A30% 21명(15.7%), 모름 7명(5.2%)

구분	빈도(명)	유효비율(%)
현행(S등급15%,A등급30%)유지	49	36.6
S등급10%, A등급40%	57	42.5
S등급20%, A등급30%	21	15.7
모르겠다	7	5.2
합계	1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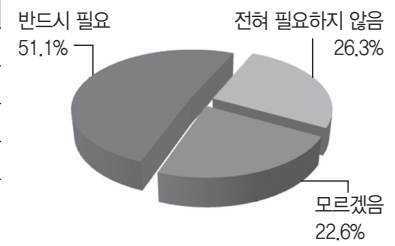


2. 연구업적

1) 국제등재학술지 IF값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적용 여부

- 질의: 국제등재학술지의 경우 IF(Impact Factor) 값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 응답: 반드시 필요 68명(51.1%), 전혀 필요없음 35명(26.3%), 모르겠음 30명(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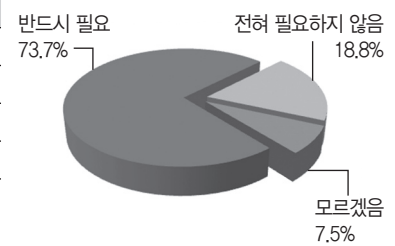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반드시 필요	68	50.7	51.1
전혀 필요없음	35	26.1	26.3
모르겠음	30	22.4	22.6
합계	133	99.3	100.0
미응답	1	0.7	
총계	134	100.0	



2) 기타학술지의 인정 기준

- 질의: 기타학술지의 경우 논문심사제도를 거치거나 ISBN 등록된 경우만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 응답: 반드시 필요 98명(73.7%), 전혀 필요없음 25명(18.8%), 모르겠음 10명(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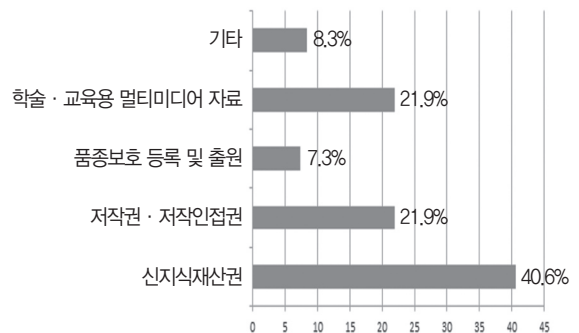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반드시 필요	98	73.1	73.7
전혀 필요없음	25	18.7	18.8
모르겠음	10	7.5	7.5
합계	133	99.3	100.0
미응답	1	0.7	
총계	134	100.0	



3)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항목

- 질의: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관련 본교에서 인정되길 희망하는 항목은?
- 응답: 신지식재산권 39명(40.6%), 저작권·저작권접권 21명(21.9%), 품종보호 등록 및 출원 7명(7.3%), 학술·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 21명(21.9%), 기타 8명(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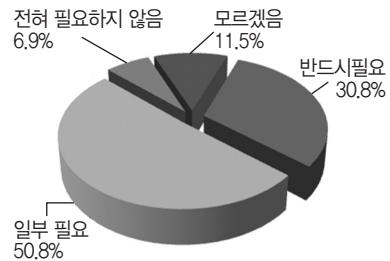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저작권·산업저작권·정보재산권)	39	29.1	40.6
저작권·저작권접권	21	15.7	21.9
품종보호 등록 및 출원	7	5.2	7.3
학술·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	21	15.7	21.9
기타	8	6.0	8.3
합계	96	71.6	100.0
미응답	38	28.4	
총계	134	100.0	



4) 상이한 현행 평가규정들의 통일 적용

- 질의: 현행 업적평가, 계약제임용,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규정들이 서로 상이함. 모두 통일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 응답: 반드시 필요 40명(30.8%), 일부 필요 66명(50.8%), 전혀 필요없음 9명(6.9%), 모르겠음 15명(11.5%)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반드시 필요	40	29.9	30.8
일부 필요	66	49.3	50.8
전혀 필요없음	9	6.7	6.9
모르겠다	15	11.2	11.5
합계	130	97.0	100.0
미응답	4	3.0	
총계	1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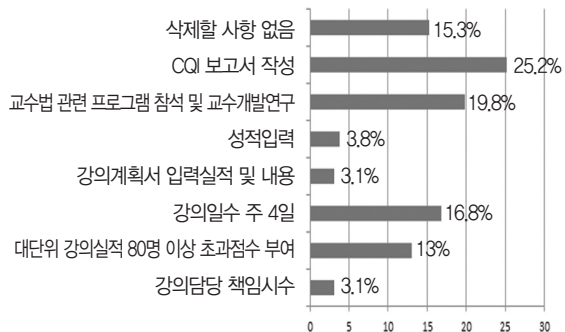


3. 교육영역

1) '강의실적 및 교육의 질 개선'에서 삭제할 항목

- 질의: 현행 '강의실적 및 교육의 질 개선' 평가항목 중 우선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항목은?
- 응답: 강의담당 책임시수 4명(3.1%), 수강생 80명이상 초과점수 17명(13.0%), 주4일 강의 22명(16.8%), 강의계획서 입력 4명(3.1%), 교수법 참석 26명(19.8%), CQI보고서 33명(25.2%), 없음 20명(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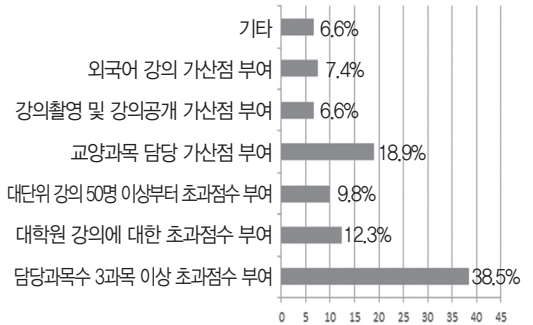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강의담당 책임시수	4	3.0	3.1
대단위 강의실적 80명 이상 초과점수 부여	17	12.7	13.0
강의일수 주 4일	22	16.4	16.8
강의계획서 입력실적 및 내용	4	3.0	3.1
성적입력	5	3.7	3.8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석 및 교수개발연구	26	19.4	19.8
CQI 보고서 작성	33	24.6	25.2
삭제할 사항 없음	20	14.9	15.3
합계	131	97.8	100.0
미응답	3	2.2	
총계	134	100.0	



2) '강의실적 및 교육의 질 개선'에서 추가할 항목

- 질의: 현행 '강의실적 및 교육의 질 개선' 평가항목에서 우선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은?
- 응답: 3과목 이상시 초과점수 47명(35.5%), 대학원강의 초과점수 15명(12.3%), 50명이상 수강생 초과점수 12명(9.8%), 교양과목담당 가산점 23명(18.9%), 강의촬영 및 공개 8명(6.6%), 외국어강의 가산점 9명(7.4%), 기타 8명(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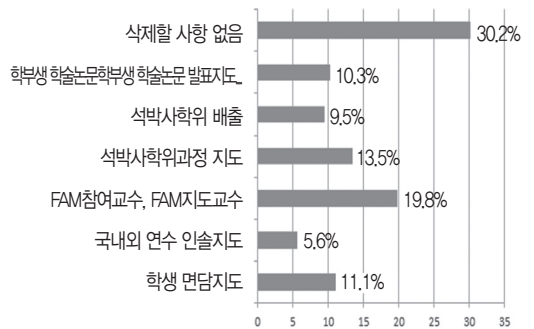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담당과목수 3과목 이상 초과점수 부여	47	35.1	38.5
대학원 강의에 대한 초과점수 부여	15	11.2	12.3
대단위 강의 50명 이상부터 초과점수 부여	12	9.0	9.8
교양과목 담당 가산점 부여	23	17.2	18.9
강의촬영 및 강의공개 가산점 부여	8	6.0	6.6
외국어 강의 가산점 부여	9	6.7	7.4
기타	8	6.0	6.6
합계	122	91.0	100.0
미응답	12	9.0	
총계	134	100.0	



3) '학생지도실적'에서 삭제할 항목

- 질의: 현행 '학생지도실적' 평가항목에서 우선 삭제되어야 할 항목은?
- 응답: 학생면담지도 14명(11.1%), 학생연수인솔 7명(5.6%), FAM참여및지도 25명(19.8%), 석박사학위과정지도 17명(13.5%), 석박사학위배출 12명(9.5%), 학부생논문지도 13명(10.3%), 없음 38명(30.2%)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학생 면담지도	14	10.4	11.1
국내외 연수 인솔지도	7	5.2	5.6
FAM참여, 지도교수	25	18.7	19.8
석박사학위과정 지도	17	12.7	13.5
석박사학위 배출	12	9.0	9.5
학부생 학술논문 발표지도, 게재지도, 입상지도	13	9.7	10.3
삭제할 사항 없음	38	28.4	30.2
합계	126	94.0	100.0
미응답	8	6.0	
총계	134	100.0	



4) ‘강의평가반영’의 현행 배점방식의 수정사항

- 질의: 현행 ‘강의평가반영’은 0.5점 구간별로 25점씩 차이로 배점을 책정하고 있음. 현행 배점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응답: 현행유지 40명(30.3%), 구간배점을 25점 이상으로 2명(1.5%), 구간배점을 25점 이하로 17명(12.9%), 구간을 과목평균 0.25점 단위로 구분 9명(6.8%), 구간을 과목평균 0.1점 단위로 구분 10명(7.6%), 구간없이 ‘과목평균×담당과목수’ 적용 53명(40.2%), 기타 1명(0.8%)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현행유지	40	29.9	30.3
구간배점 현행 25점 보다 많이	2	1.5	1.5
구간배점 현행 25점 보다 적게	17	12.7	12.9
구간 과목평균 0.25점 단위구분	9	6.7	6.8
구간 과목평균 0.1점 단위구분	10	7.5	7.6
구간없이 ‘과목평균×담당과목수’ 적용	53	39.6	40.2
기타	1	0.7	0.8
합계	132	98.5	100.0
미응답	2	1.5	
총계	134	100.0	

4. 봉사영역

1)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시만 봉사점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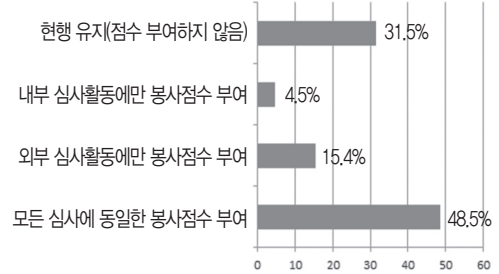
- 질의: 현행 각종 교내 위원회 위원 임명시 일정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회의 참석시에만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응답: 위원임명시 무조건 점수부여 18명(14.1%), 일정횟수 이상 참석시 점수부여 48명(37.5%), 참석횟수 비례 차등점수 부여 52명(40.6%), 모르겠다 10명(7.8%)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위원임명시 무조건 점수부여	18	13.4	14.1
일정횟수이상 참석시만 점수부여	48	35.8	37.5
참석횟수 비례 차등점수부여	52	38.8	40.6
모르겠다	10	7.5	7.8
합계	128	95.5	100.0
미응답	6	4.5	
총계	134	100.0	

2) 논문심사시 봉사점수 인정

- 질의: 타 대학에서는 SCI급, 학진등재(후보)지, 교 석박사학위, 교내 석박사학위 논문심사시에만 봉사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응답: 모든 심사에 동일 점수 63명(48.5%), 외부심사에만 점수 20명(15.4%), 내부 심사에만 점수 6명(4.6%), 현행유지 41명(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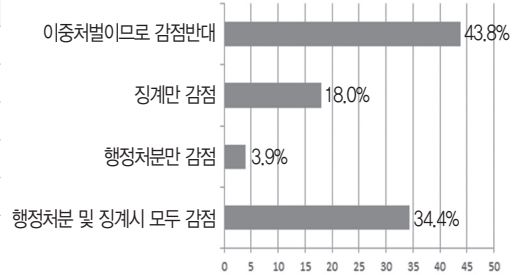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모든 심사에 동일 봉사점수 부여	63	47.0	48.5
외부 심사에만 봉사점수 부여	20	14.9	15.4
내부 심사에만 봉사점수 부여	6	4.5	4.6
현행 유지(점수 부여하지 않음)	41	30.6	31.5
합계	130	97.0	100.0
미응답	4	3.0	
총계	134	100.0	



3) 행정처분 및 징계시 감점

- 질의: 타 대학에서는 교원이 행정처분 및 징계(중징계, 경징계)를 처분 받은 경우 봉사영역의 점수를 감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응답: 행정처분 및 징계시 모두 감점 44명(34.4%), 행정처분만 감점 5명(3.9%), 징계만 감점 23명(18.0%), 감점반대 56명(43.8%)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행정처분 및 징계시 모두 감점	44	32.8	34.4
행정처분만 감점	5	3.7	3.9
징계만 감점	23	17.2	18.0
이중처벌이므로 감점반대	56	41.8	43.8
합계	128	95.5	100.0
미응답	6	4.5	
총계	1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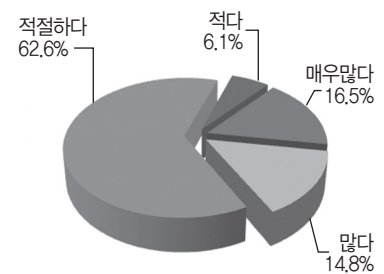


5. 산학협력영역

1) 산학협력영역 평가항목 개수

- 질의: 본교의 산학협력영역의 평가항목 20개(세부항목 포함 32개)의 개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응답: 매우 많음 19명(16.5%), 많음 17명(14.8%), 적절 72명(62.6%), 적음 7명(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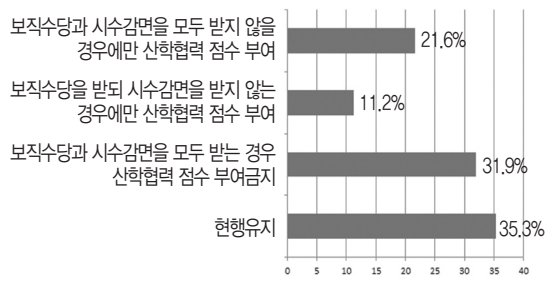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매우 많다	19	14.2	16.5
많다	17	12.7	14.8
적절하다	72	53.7	62.6
적다	7	5.2	6.1
매우 적다	0	0	0
합계	115	85.8	100.0
미응답	19	14.2	
총계	134	100.0	



2) 일부 보직의 산학협력 중복수혜

- 질의: 일부 보직의 경우 산학협력 점수도 부여하면 중복수혜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응답: 현행유지 41명(35.3%), 보직수당과 시수감면을 모두 받는 경우 산학협력 점수 부여 금지 37명(31.9%), 보직수당을 받되 시수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산학협력 점수 부여 13명(11.2%), 보직수당과 시수감면을 모두 받지 않을 경우에만 산학협력 점수 부여 25명(21.6%)

구분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현행유지	41	30.6	35.3
보직수당+시수감면 모두 받는 경우 산학협력 점수 부여금지	37	27.6	31.9
보직수당을 받되 시수감면 받지 않는 경우에만 산학협력 점수 부여	13	9.7	11.2
보직수당+시수감면 모두 받지 않을 경우에만 산학협력 점수 부여	25	18.7	21.6
합계	116	86.6	100.0
미응답	18	13.4	
총계	134	100.0	



◎ 주요 개선과제 제안

- **업적평가기준**
 - 업적평가지 복수 평가유형을 채택할 것을 고려
 - 성과연봉제 등급인원 비율 중 S등급 15%를 10%로 줄이고, 대신 A등급을 4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
- **교육영역**
 - 강의평가결과 반영시 구간없이 ‘과목평균×담당과목수’계산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
 - 담당과목 수가 3과목 이상될 경우 초과점수를 부여할 것을 제안
 - 교양과목 담당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
- **연구영역**
 - 업적 인정항목과 범위를 타대학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의 인정범위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봉사영역**
 - 학교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시에만 봉사점수 인정 필요
 - 논문심사시 봉사점수 인정 필요
- **산학협력영역**
 - 평가항목들을 조정할 여지가 있음
 -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중복수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사회과학의 미래

자치행정학과 박 홍 식

I. 사회과학의 미래

- 미국 워싱턴 밀레니엄 프로젝트

미국 워싱턴 소재 밀레니엄 프로젝트(The Millennium project)는 글로벌 미래를 연구하는 그룹으로, 유엔을 비롯해 유엔 신하의 각 연구기관 및 다양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1988~2007년 유엔대학교(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미국위원회의 후원을 받다가 2008년에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협회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Nations Associations, WFUNA)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2009년 독립적 국제 비영리기구로 전환되었다.

전 세계 50개 지부, 각 분야 3,500여 명의 학자 및 전문가를 이사로 두고 국제사회에 필요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며 필요한 정책 및 전략을 제안하고 보고함으로써 과학적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사회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 State of the Future〉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내 3,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SOFI, RTD, 퓨처스 휠, 시나리오기법 등 다양한 미래예측기법을 활용해 10년 후 미래를 예측하며 여기에 국제기구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자료를 더해 유엔 등에 보고하는 보고서로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미래회의(World Future Society) 컨퍼런스에서 발표되고 있다.

이들 보고에 의하면 2030년이면 오늘날의 상위직업 10개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정치인, 법조인, 의사, 고위공직자, 고위군인). 더불어 학문영역에서도 인문학,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학이 존재하고 사회과학은 존재의미가 미약해 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상상력을 자랑하는 인문학 그리고 논리성(과학성) 기반의 자연과학은 더욱더 발전하지만 양 학문의 지향성을 모두 고려하는 사회과학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사적 발전에서 시야를 좁혀 대한민국 강릉원주대학교를 살펴보자.

강릉원주대학교의 인문대학은 지원자가 줄어 입학정원 17명 안 밖의 생존위기에 처해있다. 위기를 탈출하려는 노력이 인문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강릉인문도시사업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인 “국문과를 위한 국문학”, “사학을 위한 사학”, “철학을 위한 철학” 교과과정에서 인문학 본연의 상상력(Imagination) 넘치는 인문학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2017 인문축제를 분석해 본다.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강릉인문도시사업단과 협력하여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을 수주하여 ‘인문학, 관용과 성찰의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2017.11.1.~11.4. 간 학술발표회 및 무형문화, 예술한마당, 청년인문학 독서토론회, 사진, 명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1월 1일 개막식 주제로 「관용에 대한 유학적 사유」의 윤사순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내용은 선조들의 철학, 문학, 정치의 여러 방면에서 관용과 성찰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저작들을 남겼으며, 그들이 이루어나간 삶의 행로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오늘의 현실에서 발전적으로 계승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의 인문학과, 정치사회학을 통합적 차원에서 조망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울곡에게서 배우는 관용과 성찰의 정신」 학술발표에서도 유학의 감성세계와 관용, 성찰의 정신을 탐구하려는 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성찰의 문제는 인문학적 논제일 뿐 아니라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 정책학의 분야에서 보다 진일보한 인간과 행복의 추구라는 논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청년인문학 독서토론회에서도 관용의 쇠퇴원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이는 정치철학과도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의 시도는 기존 사회과학에서의 주요 명제인 정의와 형평이 결코 사회과학만이 될 수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인문학이 본디 지니고 있었던 감성과 이성의 두 측면 중에서 이성이라는 측면을 사회과학에 넘겨주었다가 다시금 본연의 세계로 끌어들여 인문학다움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라 여겨진다.

11월 2일인 강릉관노가면극 공연과 해설, 강릉사천하평담교놀이 공연과 해설, 11월 3일에는 강릉단오무속악 공연과 해설, 건금마을용물달기 공연과 해설, 11월 4일에는 학산오독떼기 공연과 해설이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모두 인문학적 자산을 활용한 축제마당이였다. 즉 인문학이 학문을 위한 학문의 상아탑에서 벗어나 인류가 쌓아올린 문화적 유산을 콘텐츠화하여 사회행위를 통해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육학과 또한 기존의 운동종목 위주 교과과정에서 스포츠경영 및 마케팅, 스포츠산업 및 시설론, 노인체육론이란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와 산업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수준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반면 미술학과에서는 아직 사회적 네트워크 시도는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미

술품 경매시장을 살펴보면 서서히 경영인을 대신하여 미술계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의 전문적 안목과 식견이 자산이 되어 사회과학도들의 시장을 잠식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의 관광학과 또는 행정학과에서는 이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를 자문하게 된다.

우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9개 학과 중 사회적 가치(예: 정의, 공정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행정학과 커리큘럼을 살펴본다. 즉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과과목이 몇 개 있으며, 또 논리성(분석적, 과학성)을 강조하는 과목은 얼마나 될까?

2017년 12월 현재 30개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이 중 창의성, 상상력을 요하는 과목은 2~3과목(10%)정도이며, 과학성을 요하는 과목은 2과목(7%)이며, 기타 80%에 이르는 교과목은 행정을 위한 행정과목임을 알 수 있다.

정부 수립 후 70년이 흐르고 공직자 130만 명이 넘는 현재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해를 거듭할수록 단위가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는 왜 이리도 찾기 힘든가? 그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하는 국민적 물음에 사회과학은 답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자문을 해본다.

과학성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봐도 사회과학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은 산업공학과, 통계학과 등의 논리성에 미치지 못함을 자인하게 된다.

인접의 자연과학분야 학문들이 지금보다 더 자주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문학 또는 인문적 자산을 사회적 행위로 표출하는 모습이 많아질수록 사회과학의 미래는 밝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8 학과별 교과과정 개편에 즈음하여 창의성을 요하는 교과목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과학성에도 치밀성을 요하는 사회 적합성을 높이는 교과목 개설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II. 실천적 적합성을 높이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지역대학의 존재의미, 특히 사회과학의 적실성은 지역사회 현실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성에서 찾는 것도 유의미하다.

강원도, 강릉사회의 지역자원인 오죽헌, 경포, 바다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오죽헌의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이를 연계한 지역상품, 5일장 개설도 바람직하다. 오죽헌-선교장-경포대-해변 또는 과학단지-경포산장콘도를 연결하는 도로에 오죽길을 조성하고 골동품 및 미술품 경매시장과 부산물을 활용한 전시공간을 열어 지역 공산품전시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울곡의 고향인 강릉 그리고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강릉원주대학교에 울곡학 연구소 짚은 개설 되어도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인문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해결 노력과 자연과학의 현실기술발전 관여도 및 예술계의 사회적 행위의 관심증대는 사회과학의 학문적 패러다임(창의성 및 사회 실천성)의 전환을 요구케 된다.

사회과학의 장점인 상상력(창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학성을 심화시키려는 프로그램이 다양할수록 학문적 존립기반이 넓어질 것이며(Width of Academic Foundation) 도덕적 열망은(Depth of Moral Aspiration)은 깊어질 것이다. 좁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Just and Fair Society) 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자주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사회과학은 존재의의가 커질 것이다.

나와 다른 것 인정하기

국어국문학과 손 남 익

저는 국어국문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국어학입니다. 더 나아가 세부 전공은 의미론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를 잘 모르시는 교수님들께 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학교 내의 교수님들이 매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무슨 과 교수인지도 잘 모르고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같은 단과 대학에 있으면서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전공은 뜻을 잘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의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무엇보다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교수가 서로 학내 구성원을 잘 알아야 하는지에 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의견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교수님들은 저와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수들은 서로 상호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연구실을 쓰면서 각자 맡은 바를 다 하면 되는 연구집단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통섭이나 통합을 위한 융합 학문을 위해서 협력하는 경우는 학문적으로 밀접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수는 각자의 연구실에서 각자가 맡은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제가 위에서 저를 소개한 것은 제가 어느 과에 속하고, 어떤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인가를 밝힌 것뿐입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의 개개인의 소속과 전공을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알 필요도 없고 특별히 알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할 때, 우리 학교의 학생들과 우리 학교가 발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수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구 실적 위주의 교수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교수님들의 강의에 대한 열정이 이전보다 약화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또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수님들이 강의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학점이 나온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였는지 검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강의만 듣고 시험을 보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독서를 통하여 인풋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만 듣고 학점을 따는 학교가 아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그 방법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 내부의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학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풋이 없는 생산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의 이외에 학생들의 인풋을 증가시키는,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한 인풋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교수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 보다 우리는 가르치는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합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농담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거짓말을 말하여 억압받고 탄압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진실이나 사실을 말하여 핍박받고 탄압 받은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최근의 우리 사회를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익의 문제가 맨 앞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옳고, 내게 손해가 되면 그르다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와 ‘싫고 좋음’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내게 이익에 되도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수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학내 문제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방향타가 되는 결정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전한 집단 지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르다’와 ‘틀리다’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르면 ‘틀리다’라고 합니다. ‘그 학생은 나와 달라’ 하면 될 것을 ‘그 학생은 나와 틀려’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크레용에 살색이라는 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차별적인 표현이라 하여 지금은 살구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 ‘싫고 좋음’, ‘같음과 다름’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교수 사회에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의 양을 늘리지 못합니다. 듣는 것과 읽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정보의 양을 늘리게 합니다. 대화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우리 사회가 변합니다.

교수 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옳은 말을 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우리'라도 노력합시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라고 하면서 나는 빼고 우리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고치자'하면서 그 '우리'에서 '나'는 빼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에서 '나'를 빼면 '너희'가 됩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한 집합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교수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다.

지진과 신개념 스마트 신소재

세라믹신소재공학과 김 세 훈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의 붕괴와 화재 그리고 해일(쓰나미)이다. 무엇보다도 지진을 예측, 감지하여 대비를 할 수만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최선책[1]은 없을 것이다. 현재, 지진을 사전에 감지 할 수 있는 방법(지진관련 센서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와 지진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거물의 내진 설계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기존 연구는 인간이 노력하여 해결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은 바로 ‘생체모방’ 기술이다. 생체 모방은 바이오미메틱스(biomimetics)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생명을 뜻하는 ‘bios’와 모방이나 흉내를 의미하는 ‘mimesis’의 합성어로, 생체모방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이나 생물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모방을 통해 인간이 해결 하지 못하는 난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생체 모방학의 선구자인 재닌 베니어스(Janine Benyus)는 생체 모방을 ‘자연이 가져다 준 혁신’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생체 모방학은 새로운 생체물질을 만들고, 새로운 지능 시스템을 설계하며, 생체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스마트 재료를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디자인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2] 저자는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신소재를 디자인 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방법을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이 해결 하지 못하는 문제의 해답은 반드시 자연에 존재 한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전달 하고자 한다.



그림1 지진 경보는 코끼리에게 물어봐!

먼저 지진을 감지하는 연구에 대하여 접근해 보자. 지진을 빨리 감지하고, 인간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사전에 감지를 하더라도 대응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시스템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끼리[3:그림 1]는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소리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낮은 소리이지만 너무 강력한 목소리를 사용하여 10km 떨어진 상대와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12월에 일어난 인도양 대지진에서 코끼리들이 쓰나미를 사전에 감지하고, 집단으로 고지대로 이동하는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다. 사실, 코끼리가 해일의 내습을 예견한 것도 이 불가사의한 소리(지진 감지)를 포착하는 능력에 관계가 있다고 추정 된다.

인간의 가청 주파수가 20 헤르츠(Hz)에서 2만 헤르츠(Hz)에 비해, 코끼리가 발생하는 초저주파 소리는 약 5 Hz이다. 코끼리가 강력한 초저주파 음을 발생 할 수 있는 비밀은 그 큰 몸체이다. 이 원리는 콘트라베이스와 같은 저음 파트의 악기가 큰 것이 많은 것도 같은 이치 일 것이다. 이러한 초 저음으로 코끼리가 원거리 통신이 가능한 것은 그 소리의 강도(음압)가 100 데시벨(db) 이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충 설명 하여 비교하면, 파칭코 점의 소음이 85데시벨, 응원단+브라스 밴드의 경우, 100 데시벨 정도이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비밀은 소리를 ‘듣는 능력’에도 있다. 코끼리 발바닥은 매우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소리를 30-40Km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일 때, 코끼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저주파 음이 발생하여 해일의 2배의 속도로 전달된다는 것이 증명 되고 있다. 수마트라 대지진 때, 코끼리는 이 저주파 소리를 듣는 능력에 의해 이변을 감지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코끼리는, 발생 할 수 있는 음역대도 무려 10 옥타브 이상과, 이것 또한 규모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코끼리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지진의 감지를 자연의 힘을 도움 받아 생체 모사하여 인공지능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신 개념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코끼리에게 물어봐야 그 해답을 가르쳐 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지진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에서, 현재는 내진 설계에 따른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이 문제는 그 한계가 있다. 만약 고층 건물에 사용 되는 소재 자체가 유연성을 갖는 능력이 있다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구부러지는 세라믹(tacolum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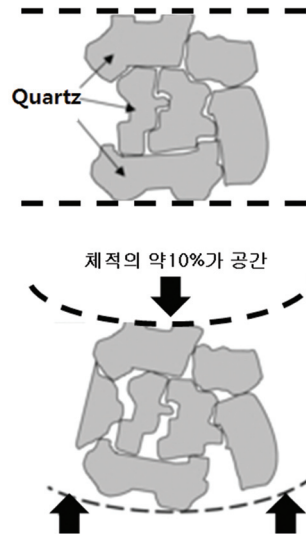


그림 3 구부러지는 세라믹의 원리

그 해법 중에 곤약처럼 구부러지는 세라믹을 사용하는 것이다.[그림 2] 이 소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모래알들이 마치 jigsaw puzzle처럼 얽혀있으며, 미묘하게 틈새가 존재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틈새는 모래알을 묶고 있던 부분이 녹아 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자연계에서는 풍화에 따라 용해되어 소멸)

즉, 그 비밀은 수백 마이크로(μm)의 석영 입자와 빈 공간[마이크로 크랙(crack)]이 3차원적으로[그림 3] 이루어진 미세 구조를 생체 모사하여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기존의 세라믹(ceramic) 소재를 부드럽게 하는 기술에 대하여 연구 되고 있다.[5] 또한 부드러운 돌은 건물을 지진으로부터 지키는 신 개념 스마트 소재로서 응용이 될 것이다.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돌이라도 그 속에 빈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구부러질 수 있는 성질로 변화시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스마트 신소재로 새로운 개념의 응용에 적용 할 수 있듯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생각의 여유를 갖고 사랑과 용서로 감쌀 수만 있다면, 경직된 대학사회가 유연성과 상호 존중을 갖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작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1] <http://www.metro.tokyo.jp/KOREAN/GUIDE/BOSAI/index.htm> 도쿄방재

아래 표의 우측은 일본 고베 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하였으며, 좌측은 일본 동경의 지진 매뉴얼을 게재하였다. 지진 발생 후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다. 준비 된 물이 없었던 사람은 지진 후 살아남았어도 물 부족으로 대부분 사망하였고, 구조 활동이 2-3일 내로 개시되기 어려우므로 살아남기 위한 물(보관 장소는 출입구 가까이에 보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진이 일어나 혼란 중에 집으로 가면 절대 안되며, 공공장소로 가야지만 구출 되고 살아남을 확률이 크며, 가족과도 만날 수 있다. 휴대 전화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해일이 발생하는 곳은 무조건 높은 지대로 피신하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

일본 동경도(東京都)의 지진 매뉴얼		지진 경험담
지진 시의 행동		
①	우선 몸의 안전이 최우선! ▶흔들림을 느끼거나 긴급 지진 속보를 받았을 때는 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동 한다.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면 않됨.(목조건물일 경우만 테이블 밑으로)
	▶튼튼한 테이블 밑이나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넘어 오지 않는' '이동하지 않는' 공간에 몸을 위탁하여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상황을 본다.	
	고층(10층 이상)에서의 주의 점 ▶고층에서는 흔들림이 몇 분 계속 될 수 있다.	
	▶크고 느린 흔들림으로 가구가 넘어지거나 떨어질 위험과 함께 크게 이동되는 위험이 있다.	
지진 직후의 행동		
②	침착한 불 확인과 초기 소화 ▶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흔들림이 가라앉은 후 당황하지 않고 불 단속을 한다.	화재에 의한 폭발 피해가 더 큼
	▶화재가 난 경우 침착하게 불을 끈다.	
③	당황한 행공은 부상의 근원 ▶실내에서 전도/낙하한 가구류나 유리 파편 등에 주의 한다.	밖으로 나간다면 건물로부터 멀리 피한다.
	▶벽, 창문 유리,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④	창문이나 문을 열어 탈출구 확보 ▶흔들림이 가라앉을 때 피난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 한다	지진 후 문이 뒤틀려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⑤	문이나 담벼락에 접근하지 않는다. ▶야외에서 흔들림을 감지하면 블록 담 등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지진 후의 행동		
⑥	화재나 해일 시 확실한 피난 ▶지역에 대규모 화재의 위험이 다가오면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 일시 집합장소나 피난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집으로 가면 절대 안됨. 공공기관에 가야 구출될 확률이 높음 바닷가지역은 무조건 고지대로 피난하면 살 확률이 높음
	▶연안부에서는 큰 흔들림을 느끼거나 해일 경보가 발표되면 고지대등의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피난한다.	
⑦	올바른 정보 정확한 행동 ▶라디오나 텔레비전, 소방서 등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는다.	
	서로 확인하자! 우리 집의 안전, 이웃의 안부 ▶우리 집의 안전을 확인 후, 인근의 안부를 확인한다.	휴대전화는 불통된다고 생각하고 행동! (평소에 가족과 헤어 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약속이 필요)
⑧	피난 전에 안전 확인 전기/가스 ▶피난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대피한다.	

[2] https://www.ted.com/talks/janine_benyus_shares_nature_s_designs?language=ko

[3] sbilli.free.fr

[4] Joyce H. Poole et al., NATURE, VOL 434, 24 MARCH 2005

[5] 九州大学-研究者情報 [山口 謙太郎 人間環境学研究院 都市・建築学部門]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

소프트웨어학과 김 재 호

최근에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용어가 있는데 4차산업혁명이다. 4차산업혁명은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라는 점은 모두가 인지할 것이다.

대학교육에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운영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거 3차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화영역이 대학의 교양 필수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대학에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본 글에서는 LINC+ 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대학의 교양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대학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기원한다.

1.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의 필요성

1.1 교양교육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

교양교육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정보화시대라고 대변되던 3차산업혁명 시대인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교양에 정보화영역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정보화시대라는 시대변화에 따른 대학의 당연한 대응이었고 우리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이다. 산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를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로 이해한다면 이제는 4차산업혁명 교양교육을 과거 3차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화영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된다. 4차산업혁명의 교육내용들이 IT-SW 전공의 성격이 있다고는 하나, 과거 3차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화영역의 교육내용도 그 시기에는 컴퓨터 관련 전공 성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특정 전공 성격이라는 논란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이 4차산업혁명 교양교육을 계획, 준

비, 운영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된다.

1.2 LINC+ 사업의 수정사업계획서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 보완 요구

우리대학은 지난 2017년 4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일명 LINC+ 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그러면서 모든 LINC+ 사업단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교육부에서 요구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산학협력발전계획에서 추구하는 부분 중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제도 개선, 특화분야인력양성, 창업 및 사업화(기술이전 포함), 그 외에 혁신적인 부분” 등으로 창출될 성과중심으로 정리 기술
- 4차산업혁명 발전과 연관된 대외적 협업 및 연계 계획이 있는 경우 기술

적시하고 있듯이 LINC+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4차산업혁명 중심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특히 인력양성, 교육과정 등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들의 LINC+ 사업계획서가 처음부터 4차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사업계획서는 선정 시 사업계획서의 전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이었으리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제 1차년도 평가일정(2018년 3월)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LINC+ 사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4차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평가받을 1차년도 결과보고서에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LINC+ 사업단에서는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 교육과정, 학사제도 개선을 시작점으로 1차년도 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2. 우리대학과 4차산업혁명

2.1 4차산업혁명이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한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을 중심으로 기술이 융합하는 세상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를 바꿀 미래 세상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또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하는 초연결·초지능의 시대가 될 것이다.



출처 : WEF(2016).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길(2016)」이라는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고 있다.

<p>업종, 직무를 초월하여 SW가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관련 역량이 요구 되는 사회 도래 전망이다.</p>	
--	--

2.1 우리대학과 4차산업혁명

우리대학은 5대 특성화 분야(신소재부품, 의료융합, 지식SW, 해양바이오, 동해융합학)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특성화분야들을 앞서의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길(2016)」에서 언급된 그림과 연결시켜보면 어렵지 않게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대학의 모든 전공과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단과대학 또는 세부전공을 예시로 들어 보겠다.

--	--

이렇게 우리대학과 4차산업혁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사실 우리대학에만 한정된 현상은 아닐 것이다. 다른 모든 대학들에서도 이러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점이 우리가 4차산업혁명 교육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 플랫폼 구축

LINC+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4차산업혁명 교육의 필요성과 우리대학과의 연관성에 따라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 플랫폼 구축하고자 한다. 이 플랫폼에는 교육목표, 인재유형, 교육방향/로드맵, 교육과정/코스맵, 제도/규정, 교육환경,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갖도록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에 관련된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 담당 위원회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우리대학의 인적자원인 학생, 교수, 직원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지침이 될 것을 기대한다.

본 글에서는 이 플랫폼 중에서 교양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플랫폼은 향후 개발될 LINC+ 사업단 관련 보고서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3.1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 유형의 정의

LINC+ 사업단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교육내용의 관리를 위해 교육대상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본 글에서는 가-유형, 나-유형에 해당하는 전공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표에서 보듯이 가-나 유형은 IT-SW 비전공자를 지칭하며, 가-유형은 4차산업혁명 내용을 자신의 전공분야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목표로 한다. 나-유형은 IT-SW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둔 인재들이다.

유형	대상	목표(인재상)
가-유형	IT-SW 비전공자	자신의 전공분야에 IT를 적용하는 IT 활용인재 양성
나-유형		IT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IT 전문인재 양성
다-유형	IT-SW 전공자	IT분야와 타 산업을 융합하는 융합인재 양성
라-유형		IT분야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수준 IT 전문인재 양성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교과목을 이수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자신의 진로설계에도 참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3.2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 설계

3.2.1 4차산업혁명 교양과정의 운영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글에서는 가-나 유형의 전공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 관련 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과목 몇 개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한다면, 인식제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3차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화영역처럼 말이다. 우리대학은 다음과 같은 교양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균형교양 이수구분에 『⑥4차산업혁명』이라는 영역이 신설되는 것을 제안한다.

구분	해람기초교양	균형교양	특별교양
영역	① 대학교시 (해람인의 인성과 자아찾기) ② 창의적사고와 표현 ③ 글로벌 의사소통 ④ 전인적 인격형성	① 문학·예술 ② 역사·문화·철학 ③ 정치·경제 ④ 사회·심리 ⑤ 자연과학 ⑥ 4차산업혁명 ⑦ 공학교육인증	① 적성탐색 ② 소양교육 ③ SLC
일반	① 대학교시:2학점 ② 창의적사고와 표현:2학점 ③ 글로벌 의사소통:2과목을 선택하여 6학점 이수 ④ 전인적 인격형성:2학점	①~⑥영역 : 3개 영역 이상에서 25학점 이수	1개영역 이상에서 2학점 이수
	12학점	25학점	2학점

~~ 하 락~~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운영”이라는 교육부의 요구사항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신설되는 4차산업혁명 이수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기초 교과목들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과목발굴을 통해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교과목	기초과목	지역사회와 4차산업혁명 창의사고와 코딩입문
	응용과목	IoT의 이해 지역 빅데이터 활용 지역 콘텐츠와 AR/V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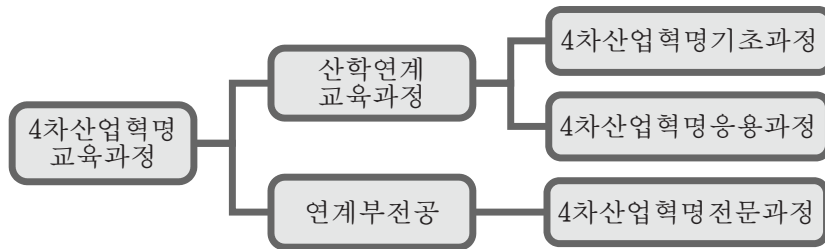
제시된 과목 중에서 지역사회와 4차산업혁명 과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산업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지역의 특징과 산업구조 - 강원도 전략산업의 미래 ◎ I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기본개념 - IoT 요소기술 및 최신기술 동향 - IoT 적용 사례 ◎ VR/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R, AR 용어 및 개념정리 - VR과 AR산업에 대한 접근 - 산업별 적용사례 : 게임, 여행, 테마파크 - 미술, 전시, 정비, 디지털쇼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의 기본개념 - 빅데이터의 최신 동향 - 빅데이터 적용 사례 ◎ 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의 활용 - 안전교육 - 드론 초급비행 ◎ 3D Prin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프린팅의 기회와 도전 - 3D프린터의 작동 원리 - 예제로 배우는 3D 모델링
---	---

3.2.2 LINC+ 사업단의 산학연계교육과정 운영

학생들은 위에서 언급된 4차산업혁명 교과목들을 낱개로 이수할 수도 있으며, LINC+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인증받을 수도 있다.

즉, 교양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기반으로 LINC+ 사업단에서는 가-나 유형의 위한 산학연계교육과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산업혁명기초과정』, 『4차산업혁명응용과정』이다. 또한 연계부전공으로 운영되는 『4차산업혁명전문과정』을 통해 나-라 유형을 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LINC+ 사업단의 산학연계교육과정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실무형 교과목인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들 실무형 교과목들도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4차산업혁명기초과정은 실무형 교과목이외에 4차산업혁명 교과목들 중에서 2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이 중에서 지역사회와 4차산업혁명, 창의사고와 코딩입문 2과목은 기초과정로 편성한 교과목이다. 4차산업혁명응용과정은 기초과정에 추가하여 IoT의 이해, 지역 빅데이터 활용, 지역 콘텐츠와 AR/VR 중 2개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 4차산업혁명기초과정 : 4차산업혁명교과목(기초 2과목) + 실무형교과목(2과목)
- 4차산업혁명응용과정 : 4차산업혁명기초과정 + 4차산업혁명교과목(2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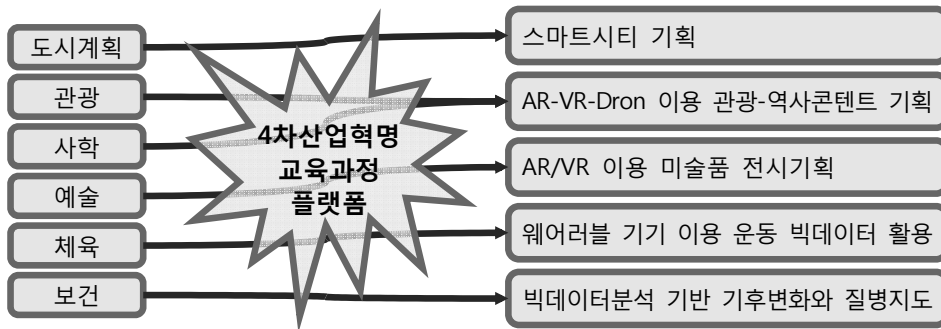
아래 표에 제시된 교과목들은 현재까지 발굴된 것으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	이수과목	4차산업혁명 교과목	실무형 교과목(필수)
4차산업혁명 기초과정(인증)	4과목	지역사회와 4차산업혁명(기초) 창의사고와 코딩입문(기초)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4차산업혁명 응용과정(인증)	6과목	IoT의 이해 지역 빅데이터 활용	
4차산업혁명 연계부전공(학위)	7과목	지역 콘텐츠와 AR/VR	

3.3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 이수후 진로

3.3.1 가-유형

가-유형의 경우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 이수하게 될 경우 어떤 활동을 하게 될 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보건분야의 경우, 기후와 관련된 질병추이 등을 파악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교육 내용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예시들 말고도 타 전공들에서 파악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활용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LINC+ 사업단에서는 이런 활용 형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3.3.2 나-유형

나-유형의 경우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 이수하게 될 경우 어떤 활동을 하게 될 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4. 문제점

4차산업혁명 교과목들을 실제 운영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러 가지 있다.

첫째, 교육할 수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예를 들어, 지역사회와 4차산업혁명)들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이다 보니 예상되는 문제이다. 교원들에게 다양한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학생들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부족뿐만 아니라, 다소 기술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과목의 수강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최저수강인원 규정에 의해 폐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수강인원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4차산업혁명 이수영역 신설을 위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대학 교양과정이 새롭게 편성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정 개정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양과정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1년만의 규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우리대학의 인적자원들에게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겪을 수 밖에 없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5. 결론

우리대학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선도인력으로 활약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운영이 절실하다. 과거의 3차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화영역이 교양 필수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이에 준하는 교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현재 계획중인 4차산업혁명 관련 교과목들이 IT-SW 전공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정보화영역에 속했던 과목들도 그 시기에는 컴퓨터 관련 전공이었고, 이를 통해 습득한 컴퓨터 활용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겐 이미 필수 능력이 되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제고 뿐만 아니라, 각종 재정 지원사업에 우리대학의 4차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교양과정에 『4차산업혁명』이수영역의 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도 이 정도 변화의 시도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교양과정에 편성된 4차산업혁명 교과목을 단순히 낱개 과목으로 이수할 수도 있고, LINC+ 사업단의 4차산업기초과정이나 응용과정을 활용하여 인증과정을 취득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로 활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2~3년 후엔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이 초중고를 막론하고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적응은 결코 쉽게 얻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의 4차산업혁명 교양교육과 LINC+ 사업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교육과정 플랫폼』을 통해 우리대학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총장 출마자와 선거 운동 방식

정보통신공학과 현 광 민

우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던지고 싶다. ‘정의(justice, 正義)’란 ‘공정하다, 바르다, 옳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던진 이 물음을 현실에 적용한다면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적용하는 중요한 개념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능력과 성과에 따른 분배’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대학의 특수성이란 개념을 고려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대학의 구성원들도 사람인지라 동일한 사안에서 당사자일 경우와 제 3자일 때의 입장에 따라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아니 이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자녀의 학원 교육 문제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비판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자식은 어쩔 수 없더라’라는 핑계로 회피하게 된다. 결국 문제는 이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고 교육의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교육정책에 대해서 맞설 때 교육의 특수성을 이야기했다. 가장 최근에 마찰이 생겼던 것이 연봉제에 대한 것인데,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란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교수의 역할, 직원들의 역할은 적절했는가?’에 대해 고민이 없고, 혹은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를 스스로 먼저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의 특수성을 망각하고 대학이라는 직장에 다니면서 성공하려는 것 혹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누리려는 것이 아닌가?’를 진솔하게 생각해야 한다. 총장 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교수 개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과연 총장 후보자로서도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대학의 총장 자질과 선출 과정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서, ‘총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의로운가?’,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정의로운가?’, 그리고 ‘총장을 선출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운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다른 대학들도 비슷하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우리학교만 정의로워야 하는가?’라는 반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러한 질의에는 ‘남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혹은 개인적인 개념을 두고 ‘남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나는 부자로 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1. 총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의로운가?

총장 선거철이 되면 항상 하는 고민이 있다. 그 고민은 ‘과연 총장 출마자들은 왜 출마를 한 것인가? 총장 자질이 있는 것인가?’란 것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한번쯤에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혹은 총장이 가져야 하는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질은 과연 무엇일까? 다른 대학의 총장을 평가할 때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대학의 총장 후보자들을 볼 때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을까? 또는 총장 후보자들도 다른 대학의 총장의 활동을 보면서 후보자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총장 후보로 출마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원인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을까?

과거에 총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생각해 보자. 그 분들은 당연히 출중하고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 분들의 출마 시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는 선거권을 가진 학내 구성원은 얼마나 되었을까? 하지만 그분들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총장 선출 시즌이 되면 선거 운동이 아니라 친분이나 학맥 등을 이용하여 도와달라는 미명하에 압박과 회유 등으로 편을 가르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친했던 분들이 서로 서먹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희한한 광경들을 봐 왔다. 거기에 선거 운동 방법으로 적법한지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 운동보다 잘 알지도 모르는 교수의 개인 연구실로 찾아가 개인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압박 형태의 선거 운동도 서슴지 않는다. 이 상황을 억지로라도 이해를 한다면 거의 20년 이상 교수로 학내에서 활동을 했으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시간 내에 총장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맥을 내세워 출마를 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과연 총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고려를 하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공약으로 얼마나 정의롭게 출마를 결정했을까?

2.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정의로운가?

일반 정치에서의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 온라인을 제외한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상식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예를 든다면 해당 지역구에서 오랜 기간의 인지도를 핵심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 물론 정당의 지지도와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치형태와 비교를 한다면 총장 선거는 정당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학내 지지도를 기반으로 선거가 이루어 져야 하고 당연히 높은 인지도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를 오래하면서 인정을 받거나,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시간에 출마를 선택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역시 인지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학의 총장 후보자 인지도라는 것은 학내에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수는 최소 20년 이상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러한 노력을 경주했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높을 것이고, 이러한 분들이 총장으로 선택되는 것이 정의로우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출마를 선택하고 총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인지도가 아닌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개 선거 운동이 아닌 포섭 형태의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고, 파벌을 만들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들을 인정한다면 과연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정의로운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3. 총장을 선출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운가?

학내 구성원들에게 우선 묻고 싶다. 선거권자로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고 선거를 하는가 아니면 총장이 될 수 있는 세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가?, 내가 총장을 선출하는 행위는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수행이 되었는가?, 왜 선거권자들은 포섭이 되어 파벌을 만들 수밖에 없는가? 왜 후보자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가? 파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왜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가?

총장 선거가 끝나면 항상 공치사를 하게 된다. 누가 공이 있고 누가 적이고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구분을 하는 것이다. 새롭게 총장이 되어 관리 그룹을 형성한다는 것은 지배층이 바뀌는 것이고 지배층으로써 피아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일반 정치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있다. 정치란 집권을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나타난다고 치더라도,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대학에서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인가? 과연 자신을 지지했던 그룹에 있는 사람만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라서 그분들로만 학교운영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교육의 특수성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부분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적폐 청산’이다. 아마도 이 적폐청산은 결국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적폐청산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들은 각론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명분을 결정하는 총론에는 수긍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총장 선출과정에서 적용했을 때 적폐 청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 보자. 현 정치권의 적폐 청산은 이전 정부에 있는 사람의 활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장 선출과정에서 이전 선거에서 선거권자들의 잘못은 없는가?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적폐 청산을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찬성을 하지만 그 적폐 청산 대상이 된다면 ‘관행이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

나라 묻혀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식의 변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총장 선출에 대해서 선거권자들의 적폐를 지적한다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총장의 선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파벌의 형성을 막아야 한다. 파벌은 곧 경쟁이 아닌 싸움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적폐 청산은 파벌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없애야 하고, 선거권자들이 인맥, 학맥에 따른 압박과 회유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간 이전에는 선거를 목적으로 개인 연구실 방문을 금지하여야 한다. 물론 개인적인 만남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연구에 대한 일 혹은 학교 일에 대한 일로 만나야 한다면 제 3자가 반드시 참여를 하고 대화내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밀이나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내용의 업무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은 공개되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운동원 제도를 도입하여 등록된 선거운동원들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이들도 개인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너무 세세한 것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출마 예정자들은 조심해서 공식적인 만남으로 추후에 그 만남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출마 후보자들이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압박형태의 선거운동에서 탈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후보자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학교 본부 혹은 교수회에서 매주 또는 매달 출마 후보자들의 소식을 담아 배포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와 온라인/오프라인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4년 동안 꾸준히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은 총장이 취임하면 재임기간동안 언제든지 다음 총장에 출마하고 싶은 분들의 출마의사 신청을 받고, 해당 신청을 한 분들이 홍보를 요청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문건을 받아 그 문건들만을 활용하여 소식지를 발간하면 된다.

셋째, 학교 행정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태 혹은 이전 총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일들의 진행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총장에 선출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총장에 취임하여 축포와 샴페인을 터트리는데 대신 챙겨야 하는 일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총장은 교무회의와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차기 후보 출마 예정 신청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지만 발언권이 없는 참관자로 참여를 시키면 되고, 그 숫자가 많은 경우 추천으로 참관자를 선정하면 된다. 물론 비공개가 필요한 회의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된다. 이런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현 총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공개됨으로써 학교 운영에 대한 건강한 견제가 가능하다. 또한 추가 이득으로 회의 참가를 통하여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듦으로써 차기 총장은 좀 더 나은 공약을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금까지 총장 선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은 법치 및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하며, 악법도 법이라는 개념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문제는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정의란 개념과 교육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로 귀결이 된다. 교육의 특수성은 미래 세대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즉 가르치는 내용과 자신이 하는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교육이 특수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며 다른 직장인에 비하여 더 정의로우며, 더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당연히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것, 무시했던 것,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 나가면서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고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다.

▶ 신 / 임 / 교 / 수 2017. 3. ~ 2017. 12.



성명 강성락
소속 대기환경과학과
메일 slkang@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327
학력
학사 :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
석사 :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박사 :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Penn State Univ.) 대기과학과
경력
미국대기과학연구소 (NCAR) Advanced Study Program 박사후과정
미국 Howard Univ. 방문과학자
미국 Texas Tech Univ. 교수



성명 고경호
소속 치의학과
메일 gimmebab@naver.com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230
학력
학사 : 강릉원주대학교 치의학과
석사 : 강릉원주대학교 치의학과 치과보철학
박사 : 강릉원주대학교 치의학과 치과보철학
경력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레지던트 (2010.03.02.~2013.02.28.)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전임의 (2016.05.01~2017.05.01)



성명 김유진
소속 환경조경학과
메일 ejkim@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478
학력
학사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박사 : Virginia Tech, School of Architecture + Design Research
경력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전임강사
Group I.D.E.A.S Cofounder
CA 조경기술사 사무소



성명 허재윤
소속 식물생명과학과
메일 jyheo@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354
학력
학사 : 강원대학교 원예학 학사
석사 : 강원대학교 원예학 석사
박사 : Wageningen 대학교 식물과학 박사
경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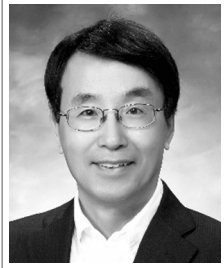


성명 황승환
소속 독어독문학과
메일 hansu@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126
학력
학사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학사
석사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석사
박사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박사
경력
상명대학교 연구교수 역임



성명 이동철
소속 산학협력단
메일 newsea@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1678
학력
학사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석사 : 강릉원주대학교 수산학석사
박사 : 강릉원주대학교 이학박사
경력
강원도청(환동해출장소 소장)
강원도청(환동해본부 본부장)
(사)강원해양수산포럼 회장

▶ 정 / 년 / 퇴 / 임 / 교 / 수



◆ 강등학 교수 (국어국문학과)

◆ 학력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국문학과 (문학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문학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문학박사)

◆ 교육 활동

- 1977.03-1981.02 서울 금란여자중학교 교사
- 1983.03 -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국문학과 전임강사 부임 후 교수 재직
- 1988.02-1990.02 신문사주간교수
- 1991.02-1993.01 국문학과 학과장
- 1993.02-1995.01 대학원 교학과장
- 2001.01-2002.12 인문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 학술 활동

- 1998.01-1999.12 한국구비문학회 연구이사
- 2003.01-2004.12 한국민속학회 회장
- 2004.03-2004.10 한국민속학자대회 창설, 초대 공동조직위원장
- 2005.01-2006.12 한국민요학회 회장
- 2009.01-2010.1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회장

◆ 사회 활동

- 2005.10-2006.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예술상 심사위원
- 2006.06-2006.1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사업 지정공모 평가위원
- 2006.10-2007.09 남북국악교류민간추진단 추진위원
- 2007.04-2009.0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2008.03-2014.12 제49회, 50회, 52회, 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
- 2011.10-2011.12 문화체육관광부주최 <2011 아리랑한마당> 총감독
- 2012.03-2013.02 문화체육관광부 아리랑세계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2012.12-2013.1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위원
- 2014.03-2014.12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 기획연구TF팀장
- 2015.08-2015.10 문화체육관광부주최 광복70년기념 대한민국아리랑대축제 자문위원
- 2015.01 - 현재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조직위원



◆ 김규중 교수 (생물학과)

◆ 학력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과 이학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과 이학박사
- 박사 후 연수 : 미국 미시간 주립대

◆ 주요 경력

- 1985.03 - 현재 강릉대학교 생물학과 전임교수
- 1998.08-2000.09 강릉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장
- 2007.10-2011.02 강릉원주대 환경문제연구센터장
- 2012.03-2014.02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장
- 2014.03-2016.02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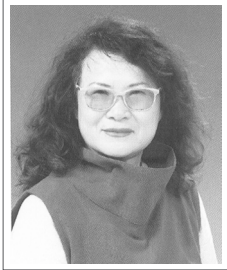
◆ 주요 활동

·역저서

균류학(2017), 환경학도를 위한 미생물학(2002), 미생물학(2009), 균류학용어집(2007), 균류생물학(2006), 균학개론(1999), 미생물학 실험서(1998)

·최근주요논문

- (1) Paludibacterium purpuratum sp. nov., isolated from wetland soil(2016)
- (2) Hymenobacter marinus sp. nov., isolated from coastal seawater(2016)
- (3) Mucilanibacter aquaedulcis sp. nov., isolated from fresh water(2015)
- (4) Novel species candidates belonging to the phyla Bacteroidetes, Firmicutes, and Actinobacteria isolated from the Halla mountain wetlands(2011)
- (5) Novel taxa belonging to the class Alphaproteobacteria, and Gammaproteobacteria, isolated from the Sumunmulbengdui wetland area of Jeju island(2011)
- (6) Species diversity of Betaproteobacteria in the Sumunmulbengdui wetland area of Jeju island and distribution of novel taxa(2011)
- (7) Biodegradation and saccharification of wood chips of Pinus strobus and Liriodendron tulipifera by white rot fungi
- (8) Labeling of spirochetes with fluorescent fatty acids(2008)
- (9) PCR Cloning of genes encoding the Mn-peroxidase isozyme family from Trametes versicolor KN9522 using degenerate primers(2006)
- (10) Mycelial extract of Phellinus linteus induces cell death in A549 lung cancer cells and elevation of nitric oxide in raw 264.7 macrophage cells(2006)
- (11) Production of lignin degrading enzymes and decolorization of various dye compounds by wood-rot fungi(2006)
- (12) Analysis of rDNA ITS region from Trametes spp. in Kangwon province, Korea(2005)



◆ 김득란 교수 (유아교육과)

◆ 학력

· 성균관대학교 임상심리학 박사

◆ 주요경력 및 활동

- 한국심리학회 건강심리 전문가
- 게슈탈트치료 전문가
- 임상심리학 박사
- 펠덴크라이스 국제공인전문가
- 차일드스페이스 국제공인전문가
- 아낫 브리엘 메쏘드 전문가
- 현 강릉시 소재 영유아발달센터장



◆ 김창진 교수 (독어독문학과)

◆ 학력

- 학사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졸업
- 박사 : 송실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96.07-1998.06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 2002.01-2004.12 독어독문학과장
- 2005.01-2006.12 강릉대학교 인문대학장. 교육대학원장 겸임
- 2007.07-2009.07 강릉원주대학교 교무처장
- 2007.07-2012.12 독어독문학과장

◆ 공적 내용

1985년 9월 1일 독어독문학과에 부임한 이래, 독일희곡, 독문학사, 실용독일어, 독일어교재 연구 및 지도법 등 일상생활에서의 독일어 구사능력 배양, 독일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교양(또는 전문적 소양)습득을 위한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후학 양성에 많은 힘을 쏟았으며, 독일어 교사 양성에도 기여함

특히 1991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26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독일희곡작품의 번역극, 원어극을 지도함으로써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에게 독일희곡의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이 번역극, 원어극의 무대경험을 통해 독일문화, 더 나아가 유럽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글로벌시대에서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공헌함

학생지도에도 열성적으로 임하여 진로, 학사, 심화학습, 개인적인 문제 등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이 갖는 고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담함으로써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생들, 지역주민들에게 독일어를 지도함으로써 독문과 학생들의 독일어 실력향상 및 지역주민들에게 독일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함

강릉대학교 대학신문사 주간, 인문과학연구소장, 인문대학장, 교육대학원장(겸임), 강릉원주대학교 교무처장 등 교내의 주요 소임을 맡아 열정적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인문과학연구소장 재직 시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영동문화 창달’을 위한 세미나를 태동시켜 현재에 이르게 하였고, 인문학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연구소 차원의 재원확보를 처음으로 실현하는 등 연구소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공헌함

교무처장 재직 시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학력저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무력감 등으로 인해 심각한 회의에 빠져있음에 직면해 ‘동기부여 및 학습법’ 교과목을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갖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양과정교과목을 내실화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어 학교 발전에 공헌함

한국독어독문학회, 한국독일언어문화회 교육이사, 한국카프카학회, 고암독일학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통해 연구에 매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함



◆ 김회영 교수 (식물생명과학과)

◆ 학력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원예학과 (농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예학전공 (농학석사)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대학원 식물육종유전학전공 (농학박사)

◆ 주요 경력

- 1976.12-1978.12 농촌진흥청 작물개량연구사업소 연구요원
- 1978.12-1988.07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고령지시험장 농업연구사보/농업연구사
- 1988.07-1991.09 농촌진흥청 고령지시험장 농업연구관
- 1991.09-1994.09 강릉대학교 이공대학 원예학과 조교수
- 1995.10-2000.09 강릉대학교 산업대학 원예학과 부교수
- 2000.10-2017.08 강릉원주대학교 원예학과/식물응용과학과/식물생명과학과 교수
- 1994.03-1996.02 강릉대학교 산업대학 원예학과 학과장
- 1998.09-2000.08 강릉대학교 농어업인교육원 원장
- 2001.03-2003.02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 2002.03-2005.02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물응용과학과 학과장
- 2005.03-2007.02 강릉대학교 농수산인교육원 원예과 과장
- 2007.03-2009.02 강릉대학교 농수산인교육원 교학부장
- 2009.05-2012.12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전작[감자]전공 주임교수
- 2013.09-2017.08 강릉원주대학교 웰빙농산업정보원 원장

◆ 주요 활동

- 1994.07-1996.06 농촌진흥청 고령지시험장 겸임농업연구관
- 2000.05-2006.04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전문위원
- 2007.12-2009.12 강릉지역협력단 정책자문위원
- 2009.02-2010.12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센터 겸임농업연구관
- 2009.08-2011.08 강릉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2010.05-2012.05 강원도농업기술원 특화작목기술전문위원
- 2011.01-2012.12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겸임농업연구관



◆ 정의선 교수 (관광경영학과)

◆ 학력

- 국립 강릉교육대학(국립 강릉대학교 전신) 학사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주요 경력

- 2009.01-2010.12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장
- 2012.01-2014.01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장
- 2017.03-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명예교수

◆ 주요 활동

- 2005.09-2007.08 (사)한국관광학회 회장
- 2005.09-2008.10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 2005.12-2008.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비상임이사
- 2011.12-2015.12 강릉시 주요업무평가 위원장
- 2018.01- 현재 강릉관광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교수 동정

2016. 12. ~ 현재

- ◎ 국어국문학과 강등학 교수 퇴임기념 고별강연, ‘아리랑의 인문학’
- ◎ 해양식품공학과 김상무 교수 (사)한국수산과학회 29대 회장에 선출
- ◎ 국어국문학과 장정룡 교수, 교산난설헌선양회 이사장 선임
- ◎ 토목공학과 이승우 교수, 최우수논문상
- ◎ 국어국문학과 강등학 교수, 공연 “아리랑, 삶을 말하다” 무대에 올린다
- ◎ 안진태 명예교수 글 국어참고서 주요 지문으로 발간
-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에 유구종 교수 취임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논문상 수상
- ◎ 국어국문학과 김무립 교수 난정학술상 수상자 선정
- ◎ 화학신소재학과 박정민 교수, 우수포스터상 수상
- ◎ 교육역량개발원, SP상담 및 사제동행 교수 학습법 특강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논문상 수상
- ◎ 중어중문학과 김만원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 국어국문학과 강등학 명예교수, <소리극 강릉아리랑> 무대에 올린다
- ◎ 철학과 강철웅 교수 저서,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 식물생명과학과 김화영 교수 정년 퇴임식
- ◎ 치과대학 박덕영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 식품가공유통학과 이근택 교수, 국제 심포지엄 강연
- ◎ 해양식품공학과 박성희 교수 연구실, 우수포스터상 수상
- ◎ 기계자동차공학부 박찬일 교수 기계학회 제1회 교육발전상 수상

- ◎ 인문학연구소, 2017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 쾌거
- ◎ 과학기술대학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 2017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 ◎ 박찬진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 ◎ 강등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의 저서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선정
- ◎ 미술학과 신승철교수의 저서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선정
- ◎ 기계자동차 공학부 박찬일 교수 대한기계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당선
-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에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박홍식 교수, 법학과 오경식 교수, 국제통상학과 강승호 교수, 자치행정학과 권자경 교수 4명 임명
- ◎ 퇴임 교수(식물생명과학과 김화영 교수, 생물학과 김규중 교수, 독어독문학과 김창진 교수, 유아교육과 김득란 교수) 훈장 전수식 열려
- ◎ 식품가공유통학과 이근택 교수 가자마다대학교에서 학술 발표
- ◎ 생물학과 김규중 교수, 후학을 위해 발전기금 5백만원
- ◎ 자치행정학과 권자경 교수, 강릉시민 대상 '지방재정의 이해' 특강
- ◎ 무역학과 이현식 교수, 대학발전기금 1억원 기부
- ◎ 국어국문학과 강등학 명예교수의 소리극 광화문에 진출
- ◎ 독어독문학과 강호진 교수 한국독일언어문학회 회장에 선임
- ◎ 패션디자인학과 엄소희 교수팀 2017학년도 (사)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 ◎ 생물학과 전방욱 교수, 제18차 아시아생명윤리학회 학술대회 및 GWNNU-AUSN 합동 워크숍 개최
- ◎ 해양식품공학과 박성희 교수 연구실,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우수 포스터상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전력산업 소프트웨어 장려상 및 논문상
- ◎ 전기공학과 김종겸 교수 논문상 수상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팀 논문상, 캡스톤디자인 우수상, 학술대회 발표상 수상
- ◎ 식품가공유통학과 이근택 교수 국제 심포지엄 기조 강연
- ◎ 치과대학 박영욱 교수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신임회장 취임

2017. 01. ~ 현재

1. 평의원회 개최

1) 제12차 평의원회 (2017.2.1)

- 안건 1.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규정(안) 심의
- 2. 2017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3. 보직교수 임명동의 심의
- 보고 1. 코스 운영 반대운동을 위한 찬반 조사
- 2. 생명과학대학 평의원 변경
- 3.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 및 교수회 분과위원 변경
- 기타 1. 단과대학 학장후보자검증위원회 지침의 건
- 2. 시간표 공장 협조
- 3. 단과대학 경상보조비 집행 독려
- 4. 교원의 긴급 안식년제 운영 요청 건
- 5. 본부의 행정서비스 요청 건

2) 제13차 평의원회 (2017.3.8)

- 안건 1. 보직교수 임명 재동의
- 2. 2017년도 교수회 예산(안)
- 3. 교수회비 내규 개정안
- 보고 1. 2016년도 교수회와 교수친목회의 회계감사 결과보고
- 2. 단과대학 교수회 경상보조비 정산결과 보고
- 3. VISION 2025+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안) 심의결과 보고
- 4. 국교련 지교련 활동결과 보고
-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의원 선출 보고
- 기타 1. 2017년도 교수회 임원선출위원회 구성의 건
- 2. 교수장학금 개선의 건

- 3) 제14차 평의원회 (2017.4.19.)
- 안건 1. 강릉원주대학교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규정(안)
 - 2. 교수회 임원선출위원회 내규 개정(안)
 - 3. 2017학년도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주제의 건
 - 보고 1. 평의원 변경 현황
 - 2. 2017학년도 단과대학 교수회 경상보조비 배정
 - 3. 임원선출위원회 경과보고
 - 4. 국교련과 주요 대선후보 정당간의 대학정책 협약식 진행 보고
 - 기타 1. 학내 현안에 대한 평의원 질의 접수
 - 2. 특정학과 예산배정에 대한 질의접수
- 4) 제15차 평의원회 (2017.5.24)
- 안건 1. 제1회 대학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2. 교수회비 인상의 건
 - 3. 2017학년도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수행의 건
 - 보고 1. 제1회 대학회계 교수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기타 1. 구조개혁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설명회
- 5) 2017년도 교수회 정기총회 (2017.6.22.)
- 안건 1. 2016년도 교수회 회계 결산/2017년도 교수회 예산
 - 2.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규정 제정(안)
 - 3. 규정 제·개정 절차
 - 보고 1. 교수회 제2대 임원 선출 결과보고
 - 2. 교수회비 인상의 건
 - 3. 교수회 활동
- 6) 제2-1차 평의원회 (2017.10.18.)
- 안건 1. 신입회장단 인사 및 감사 선임
 - 2.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3. 재정위원회 위원 위촉
 - 4. 사무처장 및 정책국장 선임
 - 5. 단과대학 수석평의원 선정
 - 6. 교수회 강릉캠퍼스 부회장 선출의 건
 - 7.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규정의 건
 - 8. 2018학년도 대학회계 교수회 예산
 - 9. 교수회 임원 수당 지급의 건
 - 10. 교수친목회비 운영의 건

- 보고 1. 교수회 제2대 평의원 명단 보고
- 2. 단과대학 교수회 업무추진비 배정 및 집행 현황
- 기타 1. 교수친목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건

7) 제2-2차 평의원회 (2017.11.8.)

- 안건 1. 2017회계년도 대학회계 제2차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기타 1. 교수회보 원고 모집의 건

8) 평의원 업무 간담회 (2017.12.27.)

- 안건 1. 2017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표 및 성적산정표 제출의 건
- 2. 교수회 보직교수 업적평가규정 봉사영역 평가점수 개선의 건
- 보고 1. 제2대 교수회 임원 및 평의원 변경 사항
- 2. 교수회비 원천징수동의서 제출 현황
- 3. 고등교육법 제개정 요청 청원서명 결과
- 4. 교수회보 원고모집 결과

9) 2017학년도 교수회 평의원 WORKSHOP (2018.1.18.-19.)

- 안건 1. 2018회계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보고 1. 2017학년도 교수회 활동보고
- 2. 2018학년도 교수회 사업계획

2. 임원회의

1) 1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1.4)

- 안건 1. 교학 부총장 임명동의 상정의 건
- 2. 국교련 차원 KORUS 운용 반대 운동 참여 여부
- 3. 차기 평의원회 준비
- 4. 생명과학대학 평의원 교체 발령
- 5. 예산 심의 준비
- 6. 2016학년도 교수회 예산 잔액 현황 및 집행 계획
- 7. 교수회비 및 교수친목회비 정산 진행 상황
- 8.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규정(안)
- 기타 1. 기자재구입비 배정의 건
- 2. 교수회 백서의 건

2) 2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1.24)

- 안건 1.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2. 교수회운영규정 및 교수평의원회규정 개정 공포의 건
- 3. 단과대학 학장후보자 검증위원회 지침 제정의 건
- 4. 보직교수 임명동의 건
- 5. 제12차 평의원회 개최의 건
- 기타 1. 제1차 교수회 재정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 제4차 대학정책포럼 개최
- 3. 2017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파일 송부의 건

3) 3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2.1)

- 안건 1. 제12차 평의원회 회의자료 검토
- 2. 국교련 활동 참석여부
- 3. 2016년도 교수회 대학회계 잔액 및 집행계획

4) 4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2.9)

- 안건 1. 제12차 평의원회 회의록 검토
- 2. 제12차 평의원회 후속조치의 건
- 보고 1. 교수회 운영규정 및 교수평의원회 규정 개정
- 2. 2017년도 교수회비, 교수친목회비 원천징수동의서 제출 결과
- 3. 2017.02.28.자 퇴직교원 보고

5) 5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2.13)

- 안건 1. 교수회 총회 개최에 관한 건
- 2. 국립대 교수연합회의 건
- 3. 평의원회 개최의 건
- 4. 교수회비 감사의 건

6) 6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3.8)

- 안건 1. 제13차 평의원회 회의자료 검토

7) 7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3.30)

- 안건 1. 임원선출위원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
- 2. 단과대학 교수회 경상보조비 배정의 건
- 기타 1. 국교련 대학정책제안 선언 및 기자회견 개최 안내

8) 8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4.5)

- 안건 1. 교수회 제2대 임원선출 계획(안)
- 2. 제14차 평의원회 준비의 건
- 3. 2017학년도 정책연구과제의 건
- 4.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규정(안)
- 5. 교수회 백서제작의 건

기타 1. 2017학년도 제2차 지교련 임시총회 개최 안내

9) 9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4.12)

- 안건 1. 임원선출위원회 내규 개정(안)
- 2. 단과대학교수회 운영규정 제정(안)
- 3. 제14차 평의원회 소집공고의 건
- 4. 2017학년도 정책연구과제의 건
- 5. 교수회 백서 제작의 건

기타 1. 국교련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 안내

10) 10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4.19)

- 안건 1. 제14차 평의원회 회의자료 검토

11) 11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4.26)

- 안건 1. 2016학년도 대학회계 결산서의 건
- 2. 제14차 평의원회 회의결과의 건

12) 12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5.12)

- 안건 1. 정책연구과제 준비의 건
- 2. 임원선거 준비의 건
- 3. 백서제작의 건
- 4. 제15차 평의원회 준비의 건
- 5. 제1회 대학회계 교수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교수회비 인상의 건

기타 1. 국교련 제8차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

13) 13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5.17)

- 안건 1. 정책연구과제 준비의 건
- 2. 임원선거의 건
- 3. 2017학년도 제1회 대학회계 추경 예산(안) 심의 건
- 4. 제15차 평의원회 준비의 건

- 14) 14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5.24)
 - 안건 1. 제15차 평의원회 회의자료 및 식순 검토

- 15) 15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5.31)
 - 안건 1. 규정 제·개정 절차 심의 지침 공문에 대한 대책
 - 2. 정책 연구과제 수행의 건
 - 3. 교수회 임원선거 준비
 - 4. 6월 임시총회(연찬회) 준비
 - 5. 국교련 회의 결과 보고

- 16) 16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6.7)
 - 안건 1. 교수회 정기총회 준비의 건
 - 2. 국립대학법 기초법안 준비를 위한 의견수렴의 건
 - 3. KORUS 의견서 제출의 건
 - 보고 1.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 2. 국교련 제9차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

- 17) 17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6.22)
 - 안건 1. 교수회 정기총회 준비의 건

- 18) 18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7.6)
 - 안건 1. 보건복지대학 메일의 건
 - 기타 1. 지역중심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총회 개최
 - 2. 후임 평의원 선출의 건

- 19) 19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8.9.)
 - 안건 1. 6월 정기총회 의결 사항 후속조치
 - 2. 8월 정년퇴임교수 환송 행사 및 기념품 준비
 - 3. 임기만료 평의원 기념품 준비
 - 4. 재정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5. 백서 발간 준비 진행 상황 보고
 - 보고 1. 지교련 2017년도 제1차 정기총회 참석결과
 - 2. 국교련 10차 공동회장단 회의 참석결과

- 20) 제2-1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10.25.)
 - 안건 1. 제2-1차 평의원회 회의록 검토
 - 2. 제2-1차 평의원회 후속조치
 - 3. 교수회 업무분장 및 전결표

- 4. 분과위원회 배정
 - 5. 교수회 회계 감사 위촉
 - 6. 본부 연석회의
 - 7. 정책연구과제의 건
 - 8. 교수친목회 지급의 건
- 기타 1. 국교련 12차 공동회장단 회의 및 국립대학법 토론회 참석여부

21) 제2-2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11.6.)

- 안건 1. 2017회계년도 대학회계 제2차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평의원 워크샵 추진의 건
 - 3. 제2-2차 평의원회 개최 준비
- 기타 1. 분과위원회 배정에 대한 의견회람 결과
- 2. 원천징수동의서 제출 공문
 - 3. 제2-1차 평의원회 질의
 - 4. 평의원 SNS대화창 운영의 건

22) 제2-3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11.13.)

- 안건 1. 규정 심의 건
 - 2.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 3. 과학기술대학 평의원 문서 수신의 건
- 기타 1. 국교련 12차 공동회장단 회의 참석결과
- 2. 기획발전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23) 제2-4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11.30.)

- 안건 1.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국교련 서명운동 내용 논의
- 2. 정책연구과제 예산편성 및 연구원 구성의 건
- 3. 교수회 강릉캠퍼스 부회장 선출의 건

24) 제2-5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7.12.21.)

- 안건 1. 강릉캠퍼스 부회장 및 정책국장 상견례
 - 2. 2017년도 교수회 평의원 워크샵 개최
 - 3.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계획수립의 건
 - 4. 제2-3차 평의원회 개최의 건
- 기타 1. 교수회비 원천징수동의서 제출 현황
- 2. 국립대학법 제개정 청원서명 참여 결과
 - 3. 교수회 연간 업무계획
 - 4. 교수친목회 이관

- 25) 제2-6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8.1.3.)
 안건 1.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교수 급여 체계 설명회
- 26) 제2-7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8.1.11.)
 안건 1. 2018회계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 27) 제2-8차 교수회 임원회의 (2018.1.25.)
 안건 1. 교수회 평의원 WORKSHOP 회의록 검토
 2. 평의원회 소집의 건
 3. 교수회 분과위원회 운영 방법
 4. 정책연구과제의 건
 기타 1. 대학정책학회 포럼 및 국교련 「2018년도 1차 임시총회」 개최

3. 분과위원회

- 1) 교수회 재정분과위원회 회의 (2017.1.25)
 안건 1. 2017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협의
- 2) 교수회 재정분과위원회 회의 (2017.5.23)
 안건 1. 2017회계년도 대학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3) 교수회 재정분과위원회 회의 (2018.1.16)
 안건 1. 2018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4. 국교련, 지교련 활동

- 1) 국교련 제1차 임시총회 (2017.3.10 전남대학교)
 안건 1. 국교련 회칙 개정 및 국교련 공동회장단 인선
 2.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3. 2017년 주요사업 계획
 4. 고등교육 정책과제 제안 대국민 선언
 5. 국립대학법 추진현황 및 계획
 6. 코러스 대응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7. 기타
 참석 : 전병국 부회장

2) 지교련 1차 임시총회 (2017.3.10 전남대학교)

안건 1. 연합대학에 대한 의견 수렴

참석 : 전병국 부회장

3) 국교련 대학정책 제안 선언 및 기자회견(2017.3.31. 국회정문 앞 한국장애인개발원)

안건 1. 대선후보 주요정당과 대학정책 협약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참석 : 없음

4) 국교련 공동회장단 회의(2017.5.26 군산대학교)

안건 1. 2017년도 국교련 예산변경(안)

2. 국교련 국립대학법 초안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3. 국교련 차원 KORUS 공동대응 진행현황 및 방안

4. 성과급적연봉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 국립대학 총장 선출제 및 공식사태 대응 방안

6. 국교련과 대학정책학회와의 협력관계 재정립 관련

7. 故 고현철 교수 2주기 기념 학술대회 관련

8. 6.20 신정부에 바라는 대학정책을 위한 토론회 관련

9. 국립대학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관련

10. 국교련 2017년도 회비납부 관련

참석 : 이근택 교수회장

5) 국교련 공동회장단 회의(2017.7.19. 서울대학교)

안건 1. 국교련 상임회장 선출의 건

참석 : 이근택 교수회장

6) 지교련 총회(2017.7.27.~28. 안동대학교)

안건 1. 경남과기대, 해양대학 지교련 가입

2. 회의 개최 대학 순서, 회장교 순서

3. 교육대학 상임회장 1인 추가 요청 건

참석 : 이근택 교수회장

7) 2017년도 국교련 정기총회(2017.8.18 부경대학교)

안건 1. 국교련 2017년도 회계결산

2. 교협연 소속대학 공동회장단 증원 관련

3.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서명운동 여부

4. KORUS 향후대책 방안

5. 신임 상임회장 선출 경과보고 및 추인

참석 : 없음

- 8) 국교련 임시총회(2017.9.22. 서울교육대학교)
 안건 1. 총장 미임용 대학 관련 문제
 2.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국교련의 입장
 3. KORUS 향후 대책
 4. 대학 현안
 5.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공동 설문조사 연대 요청
 참석: 함석종교수회장, 이준동 부회장(원주캠퍼스)
- 9) 국교련 공동회장단 회의(2017.10.22. 서울대학교)
 안건 1. KORUS 관련
 2. 총장 미임용 및 총장·학장 선출 관련
 3. 기타
 참석 : 함석종 교수회장
- 10) 국교련 공동회장단 회의(2017.11.10. 전남대학교)
 안건 1. 고등교육법-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안)
 2. 4개 대학 미임용 총장 및 2순위자 총장 임용
 3. 시간 강사법
 4.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참석 : 함석종 교수회장
- 11) 국교련 임시총회 (2017.12.20.-21. 충남대학교)
 안건 1. 강사법(보고)
 2. 국립대학법 입법청원(보고)
 3. 고등교육법 재개정 청원(보고)
 4. 고등교육법 보완책(의결)
 5. 고등교육법 개정 위헌 소송(의결)
 참석 : 이준동 부회장(원주캠퍼스)

3. 주요 활동

- 1) 시무식 및 비전 선포식 교수회장 참석(2017.01.02.)
- 2) 교수평의회회 규정 개정(2017.02.01.)
- 3) 코러스(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국교련 차원의 성명서 발표와 즉각적인 보류 요청 찬반 조사 (2017.01.10.)
- 4) 보직교수 임명동의 및 2017회계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 송부 (2017.02.06.)
- 5) 2016학년도 교수회 회계 감사 (2017.03.07.)
- 6) 신입교원 간담회 (2017.03.20.)
- 7) 임원선출위원회 위원장 선출(정일웅 교수) (2017.04.19.)
- 8) 대학회계 결산안 심의 미요청에 대한 성명서 송부 (2017.04.27.)
- 9) 제2대 교수회 임원 선거 (2017.05.02.-06.02.)
- 10) 퇴직교원 간담회(2017.08.22.)
- 11) 신입교원 간담회 (2017.09.29.)
- 12) 제2대 교수회 강릉캠퍼스 부회장 선거 (2017.11.23.-12.09.)
- 13) 교원업적평가 기준 개선안 연구 과제 수행(2017.06.-12.)
- 14) 교수회 백서 발간 연구 과제 수행(2017.06.-12.)
- 15) 교수회 임원/교학부총장 연석회의(2017.12.28.)
 - 2017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표 및 성적산정표 제출의 건
 - 교수회 보직교수 업적평가 규정 봉사영역 평가점수 개선
 - 교수회 회계 감사 추천
- 16) 2017학년도 교수회 평의원 WORKSHOP 실시(2018.01.18.-19.)
- 17) 2018회계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 결과 송부(2018.01.22.)

시무식 및 비전선포식 - 2017.1.2



퇴임교수 송별식



2017학년도 교수회 평의원 WORKSHOP - 2018.1.18.~19.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규칙 제1540호, 제정 2015. 8. 27.
 규칙 제1638호, 개정 2016.11.15.
 규칙 제1658호, 개정 2016.12.30.
 규칙 제1658호, 개정 2016.12.30.
 규칙 제1682호, 개정 2017. 2.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②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회 임원과 감사,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총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재직 전임교원 5분의 1이상 또는 단과대학교수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교무회, 교수평의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총장이나 교수회 회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회에 심의 요청한다.
 1. 각 부총장, 대학원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개정2016.12.30.〉
 2. 대학 예·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제2항 제1호의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단과대학 교수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대의기구)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교수평의회를 둔다. 교수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단과대학교수회) 교수회의 권한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단과대학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구성)

- ① 교수회는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교수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2인(캠퍼스 별 각 1인), 사무처장 1인, 정책국장 1인을 둔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부교수 이상의 재직자로 하며, 사무처장과 정책국장은 본교에 재직 5년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 ④ 교무회구성원은 교수회 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제5조의2(교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교수회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신설 2017.2.1.〉
- ②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학내선거(교수회 회장, 부회장, 평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신설 2017.2.1.〉
- ③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교수회에 의견제시 및 권익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신설 2017.2.1.〉

제6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의 선출은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본교의 재직연한 상위자로 한다.
- ② 부회장은 캠퍼스 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본교의 재직연한 상위자로 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교무회구성원을 제외한 전임교원으로 제한한다.
- ④ 사무처장과 정책국장은 교수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⑤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만료 30일전 차기 임원의 선임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선거관리를 위해 각 단과대학교수회의 수석평의원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위원회를 두어 선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제7조(감사)

- ① 감사는 교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수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2인을 두며 교수평의원이 아닌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과 교수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위촉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정책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교수회와 교수평의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그 결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③ 사무처장은 회장을 도와 교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④ 정책국장은 회장을 도와 교수회의 정책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 ① 교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개정 2016.11.15.>
- ③ 임시총회는 학칙 제101조 제4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회의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의결안건은 회의소집 시 공고된 안건에 한하며, 긴급발의안건은 의결에 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의사 및 의결)

- ①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장 및 총장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파견, 휴직, 출장, 연구년 중인 교원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 ⑤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성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교수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 후 소정의 표결기간을 두어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공개)

- ① 회장은 의결로 비공개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방청인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한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③ 회장은 회의결과를 교내의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제13조(사무직원) 교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제14조(재정)

- ① 교수회의 재정은 본교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2.1.>
- ②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③ 교수회 임원 및 감사와 사무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교수평의원들의 교수평의회 참석실비(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개정) 본 규정의 제·개정은 교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칙 <규칙 제1540호, 2015.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교수회의 최초 임원 선출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수평의위원회가 관리한다.

부칙 <규칙 제1638호, 2016. 1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58호, 2016.12.30>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82호, 2017. 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수회 평의원 명단

2017.12.1. ~ 현재

구분	성명	학과	임기
회장	이근택	식품가공유통학과	2015.09.18.~ 2017.09.17
	함석종	관광경영학과	2017.09.18.~ 현재
부회장(강릉)	이영규	법학과	2015.09.18.~ 2017.09.17
	한갑수	환경조경학과	2017.09.18.~ 현재
부회장(원주)	전병국	소프트웨어학과	2015.09.18.~ 2017.09.17
	이준동	멀티미디어공학과	2017.09.18.~ 현재
사무처장	김태완	회계학과	2015.09.18.~ 2017.09.17
	이지영	체육학과	2017.09.18.~ 현재
정책국장	박래정	전자공학과	2016.12.15.~ 2017.09.17
	권자경	자치행정학과	2017.09.18.~ 현재
인문대학(8)	구자혁(수석)	영어영문학과	2016.03.24.~ 2017.09.17
	한기련	일본학과	2016.03.24.~ 2017.09.17
	이동기	사학과	2016.03.24.~ 2017.09.17
	채수은	교직과정	2016.03.24.~ 2017.09.17
	강철용	철학과	2017.09.18.~ 현재
	강호진(수석)	독어독문학과	2017.09.18.~ 현재
	안상복	중어중문학과	2017.09.18.~ 현재
	이미립	국어국문학과	2017.09.18.~ 현재
사회과학대학(7)	강영갑(수석)	경제학과	2015.09.18.~ 2017.09.17
	김태완	회계학과	2015.09.18.~ 2017.09.17
	강승호	국제통상학과	2015.09.18.~ 2017.09.17
	권자경	자치행정학과	2015.09.18.~ 현재
	임동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017.09.18.~ 현재
	장승욱(수석)	경영학과	2017.09.18.~ 현재
	황윤진	경제학과	2017.09.18.~ 현재
자연과학대학(8)	정일웅(수석)	대기환경과학과	2015.09.18.~ 2017.09.17
	이영훈	정보통계학과	2016.03.01.~ 2017.09.17
	김형섭	생물학과	2016.02.17.~ 2017.09.17
	최충현	물리학과	2015.09.18.~ 2017.09.17
	김병곤(수석)	대기환경과학과	2017.09.18.~ 현재
	정은희	화학신소재학과	2017.09.18.~ 현재
	오주목	수학과	2017.09.18.~ 현재
	정동빈	정보통계학과	2017.09.18.~ 현재
생명과학대학(6)	홍세진(수석)	식물생명과학과	2017.01.01.~ 2017.09.17
	조순영	식품가공유통학과	2017.01.01.~ 2017.09.17
	전중균	해양생물공학과	2017.01.01.~ 현재

구분	성명	학과	입기
생명과학대학(6)	유상권	해양식품공학과	2017.01.01.~ 현재
	장미라(수석)	식품영양학과	2017.09.18.~ 현재
	박남일	식물생명과학과	2017.12.19.~ 현재
공과대학(8)	심상연(수석)	생명화학공학과	2015.09.18.~ 2017.09.17
	하태권	신소재금속공학과	2015.09.18.~ 2017.03.08
	김세훈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015.09.18.~ 2017.09.17
	박래정	전자공학과	2015.09.18.~ 2017.09.17
	김기홍(수석)	토목공학과	2017.03.09.~ 현재
	박성준	전자공학과	2017.09.18.~ 현재
	전 충	생명화학공학과	2017.09.18.~ 현재
	최병학	신소재금속공학과	2017.09.18.~ 현재
예술체육대학(6)	우현리(수석)	패션디자인학과	2015.09.18.~ 2017.09.17
	정우진	체육학과	2015.09.18.~ 2017.09.17
	신승철	미술학과	2015.09.18.~ 2017.09.17
	김연화	공예조형디자인학과	2017.09.18.~ 현재
	엄소희(수석)	패션디자인학과	2017.09.18.~ 현재
	이지영	체육학과	2017.09.18.~ 현재
치과대학(8)	최향문(수석)	치의학과	2015.09.18.~ 2017.09.17
	박순호	치의학과	2015.09.18.~ 2017.09.17
	백경화	치의학과	2016.03.21.~ 2017.09.17
	배수명	치위생학과	2016.02.04.~ 2017.09.17
	박인우(수석)	치의학과	2017.09.18.~ 현재
	김대원	치의학과	2017.09.18.~ 현재
	김민근	치의학과	2017.09.18.~ 현재
	신선정	치위생학과	2017.09.18.~ 현재
보건복지대학(6)	성경숙(수석)	간호학과	2015.09.18.~ 2017.09.17
	임선옥	간호학과	2015.09.18.~ 2017.09.17
	한종화	유아교육과	2015.09.18.~ 2017.09.17
	서길희	간호학과	2017.09.18.~ 현재
	조주복	사회복지학과	2017.09.18.~ 현재
	최혜진(수석)	유아교육과	2017.09.18.~ 현재
과학기술대학(10)	양길모(수석)	멀티미디어공학과	2015.09.18.~ 2017.09.17
	박준철	산업경영공학과	2015.09.18.~ 2017.09.17
	신준	기계융합공학전공	2015.09.18.~ 2017.09.17
	김상경	컴퓨터공학과	2016.09.29.~ 2017.09.17
	최덕기	정밀기계공학전공	2015.09.18.~ 2017.09.17
	김대식	정밀기계공학전공	2017.09.18.~ 현재
	김동욱	산업경영공학과	2017.09.18.~ 현재
	김백기(수석)	정보통신공학과	2017.09.18.~ 현재
	김재호	소프트웨어학과	2017.09.18.~ 현재
	현광민	정보통신공학과	2017.09.18.~ 현재